

농업계 동향

2007 농어민 연금보험료 지원수준 상향조정

농림부 농어민 연금보험료 지원업무 보건복지부로부터 이관 받아 연금보험료 지원수준 인상 등 추진

농림부는 2007년 농어민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수준을 상향조정했다고 밝혔다.

전체 45등급 중 13등급(표준소득기준 월48만원)까지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14등급(표준소득기준 월52만원)부터 45등급(표준소득기준 월360만원)까지는 13등급의 지원액 21,600원을 정액 지원 하였으나, 2007년부터는 50% 지원 대상을 13등급에서 14등급으로 높였다.

이에 따라 1인당 연금보험료 지원액도 2006년에는 년119~259천원에서 2007년에는 년119~281천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농어민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은 수입개방 등 농어민의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1995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에서 편성지원 받아왔으나, 2007년부터는 관련 예산을 농림부로 이관하여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농어민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수준을 연차적으로 인상하여 농어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

지원계획 : (2008P)119~335천원/년 →
(2009P)119~394천원/년

농어민연금 지원에 따라 농어민 연금가입자 275천명의 연금보험료 1,874억원 중 761억원이 국고

에서 지원되며 그만큼 농어민은 경감혜택을 받게 되었다.

농림부는 농어민들의 노후생활 안정과 가계의 경제부담 완화를 위하여 국민연금에 가입할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국민연금의 가입 및 가입신청 문의는 농어민의 거주지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 또는 국번 없이 1355를 통해 가입 할 수 있다.

김치, 장(醬) 분야 최초 식품명인 탄생

농림부, 배추김치·숙황장·죽로차 전통식품명인 3인 지정

농림부는 '농산물가공산업육성심의회' 심의를 거쳐 김치, 장(醬), 차(茶) 분야에 3인의 전통식품명인을 지정하였다고 밝혔다.

- 김순자(여, 52세, 경기부천)씨는 가업으로 김치 제조기능을 전수받아 1986년부터 제조회사를 운영하면서 전통의 맛을 재현하고 이를 발전시켜 19건의 특허를 획득하는 등 우수한 제조기능을 인정받아 이번에 배추김치 명인으로 최초 지정되었다.
- 김병룡(남, 68세, 전북전주)씨는 고 문헌(증보산림경제)상에 전해오는 숙황장(熟黃醬) 제조기능을 보유하고 1971년부터 이를 산업화한 실적을 인정받아 장(醬) 분야 최초의 명인으로 지정되었다.
- 숙황장은 검정콩과 삶은 통밀에 엿새물, 도꼬마리, 제비썩 등을 넣어 띄운 두황매주를 사용하고 덕덕, 도라지, 다시마 등을 첨가하여 제조함으로써 일반 간장에서 나는 특유의 약취가 없고 독특한 향과 감칠맛이 나는 전통간장이다.
- 홍소술(남, 76세, 경남하동)씨는 1958년부터 48

년을 차 제조업에 종사하며 대나무 숲에서 이슬을 먹고 자란 찻잎을 따서 만든 죽로차(竹露茶)의 제조기능을 인정받아 차 분야 명인으로 추가 지정되었다.

- 죽로차는 찻잎이 연하여 솥에서 덥혀 비빌 때 그 잎에 미세하게 상처가 나기 때문에 물에서 잘 우려나며 일반 녹차에 비해 탄닌 성분이 적고 맛이 부드럽다.

전통식품 명인제도는 전통식품의 계승·발전과 우수 제조기능 보유자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하여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에 의해 1994년부터 운영되어 오고 있으며, 이번에 지정된 3인을 포함하여 현재 총 31명이 명인으로 지정되어 있다.

명인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전통식품의 조리·가공업에 계속하여 20년 이상 종사하거나, 조상전래의 특별한 조리가공방법을 그대로 보전·실현할 수 있는 자로서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농림부에 신청하면 된다.

전통식품명인은 국가지정 명인으로서의 명예를 갖게 될 뿐만 아니라 당해 전통식품을 가공 또는 기능전수를 업으로 하고자 할 때 정부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쌀 수출 추천 개시

농림부는 미곡수출추천 관리지침을 제정하여 쌀 수출추천을 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림부는 당초 2. 14일 쌀 수출 추천을 개시할 예정이었으나 쌀 수출 추천 개시가 한·미 FTA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 한·미 FTA 종료 이후로 이를 연기한 바 있다고 밝히면서,

한·미 FTA가 종료(4. 2)된 후부터 정부는 쌀 수출추천문제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이제는 추천을 개시해도 되겠다고 판단, 5월 8일 국무회의 보고와 5월 11일 경제정책조정회의보고를 거친 후, 5월 14일부터 쌀 수출 추천을 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일제시대 공출제도에 대한 역사적 반감, 60~70년대 쌀 부족에 의한 기근 등으로 인해, 쌀 수출에 대해 감히 생각도 못했던 게 사실이지만, 이제는 쌀 협상도 종료되었고, 쌀 생산도 충분할 뿐만 아니라 품질도 고급화되고 있어, 대내외적인 수출 여건이 조성되었다고 정부는 밝혔다.

농림부 관계자는 쌀 수출을 통해 우리 쌀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 하고 우리 농업인에게 새로운 시장 개척의 기회를 부여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쌀 수출을 희망하는 업체는 미곡 수출 추천 신청서를 수출계약서 사본과 함께 농림부에 제출하면 쌀 수출 추천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 미곡수출신청서 및 추천서는 농림부 홈페이지 민원광장-민원서식 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음.

※ 한미FTA 협상 전문은 농림부 홈페이지 (<http://www.maf.go.kr>)에서 볼 수 있다.

자료출처 : 농림부 농업계 동향

해외농업정보

식초를 채소에 염면시비하면 효과 좋아

식초를 채소 위에 염면시비하면 품질이 개선되고 생산량이 높아지며 병충을 방제하는 작용을 한다.

품질개선 : 식초는 비교적 많은 초산(醋酸)을 함유하고 있고 또 아미노산, 글리세린 등 여러 종류의 화합물을 함유하고 있다. 이러한 물질을 채소 엽면에 시비하면 식물체 체내에 흡수되어 영양이 증가하고 엽록소 형성이 빨라지며 광합성 효능이 향상되어 식물체 체내 대사활동이 촉진되고 채소의 흡수 능력과 항역성(抗逆性)이 높아져서 채소의 생장이 왕성해지고 품질이 개선된다.

병충방제 : 식초를 엽면시비하면 식물체 표면은 산성을 띠게 되어 살충하거나 산성 조건을 싫어하는 병충해의 성장을 억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0배 식초액은 배추의 연부병(軟腐病) 방제효과가 거의 65% 이상에 달하고, 토마토의 바이러스병 방제효과는 56~74%에 달한다. 300배 식초액은 고추의 바이러스병 방제효과가 64~90%에 달하고, 양배추에 300배 식초액을 시비하고 하루 뒤에는 진딧물의 방제효과가 47%에 달했다. 이 외에 식초와 디메토에이트(dimethoate)나 fenvalerate 등을 혼합하여 사용하면 이 두 농약의 방제효과가 10% 향상된다.

생산량 향상 : 가지채소류는 정식한 지 1~2일 후부터 매번 7~10일 마다 한차례씩 3~5차례 계속해서 300배 식초액을 엽면시비하면, 가지와 고추는 10% 이상 증산되고 토마토는 12~35% 증산되며 또 과실의 비타민C의 함량이 뚜렷이 증가된다. 오이의 개화하여 열매가 달리기 전에 묘당 식초 0.5kg을 물 50kg에 타서 시비하면 18~20% 증산된다. 이 외에도 박초이(소백채의 일종), 시금치, 수박, 호박, 감자에 묘기(苗期)부터 7일 정도에 한번 씩 2~3차례 계속해서 300배 식초액을 엽면시비하면 증산효과가 아주 뚜렷하다.

주의할 점 : ① 식초액은 알칼리성 세제나 알칼리성 농약이나 초목회(草木灰) 등과 섞어 시비하지 않는다. 산과 알칼리 중화로 효과가 없다. ② 분사

농도와 회수를 잘 파악해야 한다. 보통 기온이 낮을 때는 농도는 100~300배액이 적당하고, 기온이 높을 때는 농도는 500배액이 적당하다. 7~10일에 한번 씩 엽면시비하고 시비회수는 2~5차례로 한다. ③ 식초는 늦지 않게 일찍 시비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채소 정식 후에 활착하면 바로 한번 시비하는데 맑은 날 시비하는 것이 좋다. <중국농업과기정보망>

화엽(花葉)이 누렇게 될 때 녹반비료를 뿌려

북방지역에서 남방의 화훼를 분심기하면 잎이 누렇게 되거나 떨어지거나 성장불량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이때 녹반비료물을 만드는데, 녹반(綠礬 : 황산제일철)과 비료를 섞어 발효시키면 화훼에 의해 흡수되는 철 화합물이 만들어져 화훼생장에 이롭다.

만드는 방법 : 녹반·분비(糞肥 : 가축분)·덩이비료(목화씨깻묵, 콩깻묵, 평지씨 깻묵)·물을 1:3:5:100 비율로 섞어 겨울에는 3개월 발효시킨다. 사용할 때는 윗면의 맑은 액체를 떠다 다시 95% 이상 맑은 물을 섞어 꽃에 뿌린다. 10~15일에 한번 뿌리면 된다. 화훼 휴면기에는 시용하지 않는다. 녹반비료물은 오래 묵을수록 좋은데, 만약 2년 이상 두었다 사용하면 더 좋다. <중국농업과기정보망>

거품형태 농약살포로 비용절감

오사카부립(大阪府立)대학 등으로 구성된 연구팀이 약제(藥劑)를 거품형태로 만들어 살포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약제에 계면(界面)활성제를 섞고 공기를 투입하여 비누나 샴푸처럼 거품을 내게 만든다. 농약의 비산(飛散)을 줄일 수 있어 약제의 사

용량도 줄일 수 있다. 살충제, 살균제, 제초제 등의 살포에 사용되며, 채소, 과수, 차(茶) 등의 병충해 방제 및 논두렁의 잡초제거 등 광범위하게 이용될 수 있다.

현재는 비산(飛散)이 문제가 되고 있는 노지(露地) 연약(軟弱)채소를 중심으로 개발을 서두르고 있다. 딸기방제 실험에서는 살균제의 농도를 절반으로 해도 흰색가루병의 발생을 줄일 수 있었다. 약제의 종류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2분의 1에서 3분의 1 가량의 사용량을 줄일 수 있다고 한다. 또한 곤충일 경우에는 거품으로 질식사시키는 효과도 있다. 살포 직후에는 하얀 거품으로 인해 약제가 뿌려진 부분을 쉽게 구별할 수 있다. 거품은 잎이나 과일 뒤쪽에도 잘 뿌려져 살포작업도 편하다고 한다. <일본농업신문>

건조에 강한 신품종 감자 개발

건조한 토양에 강하고 높은 수확량이 기대되는 신품종 감자를, 홋카이도(北海道)대학대학원 이와마(岩間)교수가 개발, 농림수산성으로부터 최근 중요등록을 인가받았다. 건조저항성이 높은 감자의 육성으로는 세계에서 처음이다. 지구온난화로 건조화가 진행되고 있는 개발도상국 등으로부터 주목과 기대를 모으고 있으며, 이미 중국, 인도, 터키 등의 연구기관 등에 씨감자를 보내, 증식(增殖)을 위한 실험재배가 시작되고 있다. 감자는 쌀과 밀 등에 비해 뿌리내림이 낮고, 뿌리의 길이와 근량(根量)도 적다. 이 때문에 건조한 토양에서는 충분히 물을 빨아들일 수 없어 수확량이 떨어진다. 이와 같은 뿌리 문제에 착안(着眼)한 이와마 교수는 1991년부터 품종개발에 착수했다. 일본에서 가장 재배면적이 넓은 「남작서(男爵薯)」와 전분원료인 「고나후부키」를

교배시켜, 홋카이도대학 농장 등에서 10년 이상에 걸쳐 육종과 선발을 거듭한 결과, 근량이 많은 신품종 「곤유(根優) 1~4호」 개발에 성공했다. 곤유의 수량은 물이 충분한 조건하에서는 고나후부키와 큰 차이가 없었지만, 물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1.5배를 기록했다. 전분함유량이 많아 식미(食味)는 남작서에 비해 다소 떨어지지만, 간을 잘 맞출 경우 서양 요리에 어울릴 것으로 보고 있다. 향후에는 병해충에도 강한 품종으로 개발을 거듭할 계획이다. 또한 전분질이 많아 바이오에타놀 원료로서도 기대된다. 이와마 교수는 「지구온난화로 인해 30년 후에는 위기적 상황이 닥칠지도 모른다. 건조지역에서의 주식(主食)확보를 목표로 개발을 거듭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한다. 또한 「선진국 등에서도 한발(旱魃)이든 해에 안정적인 수확량을 전망할 수 있는 품종으로서도 기대된다.」고 말한다. <일본농업신문>

차 앞으로 돼지 설사방지

동경도 농림종합연구센터는 사료에 차(茶)잎을 섞어줄 경우 항균성사료첨가물을 사용하지 않아도 돼지의 설사를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첨가물을 사용한 통상(通常)사료와 비교할 때, 차 잎만을 섞을 경우에는 체중이 약 10% 줄지만, 면역강화작용을 기대할 수 있는 인터페론을 병용(併用)하면 체중도 감소하지 않는다. 차 잎에 들어 있는 카테킨 등의 정장(整腸)작용으로 설사가 억제된다. 급여실험에서는 건조(乾燥)차 잎을 1mm로 잘게 썰어 항균성사료첨가물 대신 사료에 1%(重量比) 섞었다. 그리고 이 사료를 4주령에서 12주령의 새끼돼지에게 급여했다.

일반적으로 이 시기에는 설사로 인해 체중이 줄기 때문에 사료첨가물을 주는 일이 많다. 항균성사

료첨가물을 사용한 대조(對照)구에 비해, 첨가물도 차 잎도 주지 않은 경우에는 설사가 발생하여 12주령 시점에서 체중이 30% 줄었다. 그러나 차 잎을 1% 섞어주면 설사발생률이 내려갔다. 그리고 동(同)월령시점의 체중도 겨울철에 10%, 여름철에는 7% 감소로 억제할 수 있었다. 또한 차 잎과 주 1회의 인터페론 투여를 병행한 결과, 체중은 대조구와 변함이 없었다. 2007년도에는 일반 양돈농가의 급여실험을 통해 효과적인 급여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차의 쓴맛이 줄어들면 새끼돼지가 잘 먹지 않기 때문에 가루차보다 잘게 썬 쪽이 좋다고 한다. 차

잎과 두당 1,000엔인 인터페론의 비싼 비용을 해결하기 위해 차 음료에 사용된 차 잎 찌꺼기를 재활용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항균성사료첨가물은 정확하게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잔류(殘留) 및 약제내성균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동(同)연구센터는 해외에서의 규제강화 흐름을 참고로 하여, 첨가물을 사용하지 않는 축산기술개발을 목표로 해왔다. 동(同)연구센터 안전환경과 가타오카(片岡辰一朗) 주임은 「소비자의 안전성에 대한 높은 관심을 고려할 때,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일본농업신문>

자료출처 : 농촌진흥청 해외농업정보

연회비 미납 회원분들께 알립니다~!

농업기술회보 연회원 여러분!

더욱 발전하는 회보를 위하여 회비 납부를 부탁드립니다.

1년 구독 기간이 완료 되신 회원분들은 아래의 계좌로 송금을 부탁드립니다.

농협 067-01-224657 예금주 : (사)전국농업기술자협회

우체국 012211-01-000320 예금주 : (사)전국농업기술자협회

제일은행 327-20-016036 예금주 : (사)전국농업기술자협회

(송금 후 성명, 전화번호를 본회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회보』 구독 1년이 지난 연회원 일 경우, 연회비 : 10,000원

평생구독을 원하실 경우, 평생회원비 : 100,000원